

2025 나주시 청년의 날과 함께 '잡(JOB)페스티벌'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의 날과 연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 '제11회 잡(JOB)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20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진행되는 잡페스티벌에 8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며 일자리 연계는 물론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현장 참여 기업으로는 ㈜인더테크, ㈜엔씨코리아, ㈜해미로, 동우일렉트릭㈜, 빛가람종합병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이 참여하며 온라인 참여기업 47개 소까지 합쳐 총 70여 개 업체가 구인에 나선다.

현장을 찾은 청년과 구직자들은 구인 기업 현장 면접, 1:1 취업 컨설팅, 고용정책 홍보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

80여 개 기업과 기관 참여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 플라마켓, 문화공연 함께하는 청년 축제의 장

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 컨설팅에서는 현직자 멘토링과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전략 지도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나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이 함께 참여해 폭넓은 고용 및 취업 정보를 소개한다.

최근 빛가람동에 개원한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전력기술교육원도 전기분야 신중년특화과정, 하이테크교육과정 등 재취업 교육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이력서 사진 촬영, 면접 메이킹업, 취업 타로, 직업 및 적성검사 등 청년 맞춤형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과 통합 개최됨에 따라 청년 창업가 플라마켓, 정책 홍보관, 정책 골든벨 등 청년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청년 버스킹과 초청공연까지 어우러져 정보와 즐거움을 함께하는 청년 축제의 장으로 꾸러질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년의 날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잡페스티벌은 청년들에게는 적성과 꿈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참



여해 나주의 활기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한 파격 임대주택 든다! 보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자격 설명회 개최

보성군(군수 김철우) 별교읍에 월세 1만 원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들어선다. 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 파격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운영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8일 (목) 오전 10시, 별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민들이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는 물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공급계획, 주택 유형과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보성군 별교읍 회정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최초 4년부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2028년 완공 예정인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 ▲최대 1,080만 원의 출산장려·양육비 지원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부부당 100만 원)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과 더불어, ▲보성 청년 온라인 화상 영어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등 청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등을 촘촘히 확대해 왔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성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청년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관광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완도치유페스타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완도 관광 자원 ▲해양치유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등으로 1인 최대 분야별 1점씩, 총 3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구급 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실무 부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50만 원), 우수상 6명(각 30만 원), 장려상

완도군, '완도치유페스타 일러스트 공모전' 개최 총 상금 550만 원, 완도의 매력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12명(각 10만 원), 총 22명(총 상금 550만 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수상작은 1인 1작품으로 제한된다. 결과는 11월 26일 발표이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완도의 관광 자원과 치유의 매력을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 "수상작은 앞으로 해양치유관광 브랜드를 홍보하는 핵심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6개 유료 관광지 할인, 섬 스탬프 투어, 무료 사진 인화 이벤트 등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고흥군, 특별한 농촌살이 '고흥스테이' 인기 만점 도자기 만들기 및 편백 체험 세달살이 통해 귀농·귀촌 설계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4년부터 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로 4기째 운영 중인 고흥스테이는 지난 7월 시작해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에서 찾아온 12세대 45명이 고흥에 머물며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군은 입주자들에게 3개월간 주거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고흥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8월에는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편백나무 독서대 만들기 체험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입주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이라 걱정은 있었지만, 아이가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다음 프로그램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흥을 처음 접한 도시민들이 고흥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흥스테이와 고흥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군, 농식품부 빈집재생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전문가 현장워크숍 시작 올해 말까지 기본·시행계획 수립 예정

강진군은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업대상지인 병영면 한골목길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사업 총괄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박사와 우석대 김승근 교수 등을 비롯해 주민·청년단체, 강진군 농어촌개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사업계획 브리핑을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오후에는 빈집 등 병영면 사업대상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식품부가 처음 시작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은 농촌 빈집 밀집 구역의 빈집 10호 내외를 활용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인구를 유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소멸

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 민간을 적극 참여시켜 향후 빈집 운영·관리 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강진군은 '삶과 여행이 공존하는 병영전차'라는 비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동이용시설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농촌다움과 병영만의 특색을 내세운 관광·문화·창업 공간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읍 강진군은 "이번 워크숍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행정·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병영면이 농촌빈집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